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경말씀: 눅13:1-9

2014년 4월 16일(수) 세월호 사건, 300여 명 사망 실종, 온 국민이 침통한 분위기

“전 국민이 집단적 패닉(panic·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다. 많은 이들이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여객선 침몰 뉴스를 차마 못 보겠다는 이들도 있다. 이유 없이 소화가 안 되고,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될 때마다 허탈한 심정을 가누지 못한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학생들이 허망한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한 집단적 죄책감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다. 급기야 안산 단원고 교감 선생님은 목을 매 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이번 사건을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겸허히 국민을 섬겨야 함. 특히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와 목사들이 회개해야 함.

죽거나 실종된 사람들이 다 악인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면 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시는가?

욥의 고난: 욥의 세 친구, 네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린 것이다. 과연 그럴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설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이 나라에 오셔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신다면 반응이 어떻게?

눅12:49-53, 불을 보내러 왔다. 분열을 보내러 왔다. 복음으로 인해 전투가 일어나는가?

눅12:54-57, 날씨 변화는 보면서도 이때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의 말씀

우리 자신과 이 나라와 전 세계의 현실을 우리는 바로 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가?

갈릴리 사람들의 불행(1-3)

바로 이때에 어떤 사람이 잘 알려진 사건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다(1).

유대인들의 세 명절: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에는 일반인들이 이방인들의 뜰에서 양을 잡아 희생물을 드릴 수 있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하였다. 빌라도는 이들이 정치적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하고는 자기 군사들을 일반인으로 가장시켜 이들을 죽임. 아수라장이 됨. 이 이야기를 끄집어 낸 사람은 이 갈릴리 사람들(아마도 이방인들)이 큰 죄인임을 예수님이 말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나는 그들보다 낫지 않은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점: 죄인이라 문제가 생긴다. 요9장의 소경(요9:1-2), 욥의 친구들(욥4:7-9), “누가 죄 없이 멸망하느냐? 의로운 자가 끊어지느냐?” “그들은 사악한 죄인들이었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사정없이 진실을 말씀하셨다(2-3절). 세월호, 천안함 No!

마9:2 등을 보면 죄가 병을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재앙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요9:3 그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짓지 않았다.

특히 은사주의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병이나 재앙이 생기는 것은 죄 때문이다. No!

선한 이들에게도 죽음이 온다. 사고가 닥친다.

유대인들의 불행(4-5)

예수님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예루살렘의 18명을 언급하신다(4-5).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갈릴리 사람들은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켰으니 빌라도가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러나 아무도 이 유대인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할 수는 없었다.

예수님의 포인트: 그들이 너희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No! 세월호, 천안함 No!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롬3:23). 시간문제지 모두가 죽는다. 죄인이기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라고 두 번이나 준엄하게 말씀하심(3, 5절). 여기의 멸망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킴.

예수님의 포인트: 그들이 죽은 것, 죄인이나, 아니냐에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살 길을 확실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불에 들어가 영원토록 멸망할 것이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닌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

1.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울게 만드는 것(대부분의 간증, 강정적인 것)
2. 죄를 고백하고 거기 따른 형벌을 감수하는 것(천주교, 행위 회개)

성경적인 회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이 변하는 것, 지적이며 의지적인 것(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행16:30)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태도이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가 있다(요3:36)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회개해야 한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 뒤에 심판이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회개해야 한다. 얼마나 안일하게 살았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가?

김대용 형제의 “다시 오지 않을 삶의 날들”,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누군가가 간절히 살고 싶었으나 소유하지 못했던 내일이다.” 전도와 복음 선포

네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 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네 혼을 지키시는 이가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잠24:11~12)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딤후4:2)

예수님의 비유(6-9)

여기에는 3가지의 상징이 있다: 무화과나무, 소유주, 포도원지기

무화과나무(이스라엘, 세상의 모든 사람), 소유주(아버지), 포도원지기(예수님)

소유주(아버지): 무화과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얻고자 함이다. 3년 동안 비용을 들여서 잘 돌보았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생명, 공기, 햇빛).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다 죽는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의 차원에서 “베어 버리라고”고 말한다.

포도원지기(예수님): 8-9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은혜와 긍휼의 주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벧후3:9).

1. 그것의 주위를 파겠다(8): 여기의 나무는 명백히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에만 관심을 두고 하늘의 것들을 무시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위를 파신다. 세상의 것들을 털어내고 하늘의 것에도 신경을 쓰라고. 그래서 재난도 주시고 슬픔도 주시고 아픔도 주신다.
2. 거름을 준다(9): 주변을 파서 정리한 뒤에 거름을 준다. 이 거름은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이다. 세상의 것들이 정리되면서 드디어 거름이 들어오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년만 더 해 보겠다고 하신다.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성령님이 심령을 찌를 때 반응해야 한다. “주여, 내게로 들어와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이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결론

세월호 침몰 같은 재난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들이 아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들도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멸망한다.”

아버지의 공의 앞에 서려면 아들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한 해만 더 참으소서.”

회개하고 확실히 돌아서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구원 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회개가 필요하다.